

# 우리나라의 소리문화 창조를 위한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 운동의 전개와 실천 전략

## The Practical Strategies and Developments of Soundscape Design Movement for Creation of Sound Culture in Korea

한 명 호\*                      오 양 기\*\*                      황 혜 주\*\*\*  
Han, Myung-Ho              Oh, Yang-Ki                      Hwang, Hey-Zoo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directions for development of soundscape design for creating a unique sound culture in a region, and to search for the practical strategies toward a soundscape design movement in Korea. For these specific aims, several components in soundscape through considering from original conception and ideology of soundscape, such as the concept of soundscape, the meaning of soundscape design, the categories of soundscape research : keynote sounds, sound signals, and soundmarks, and the primary problems and strategies in the world soundscape project(WSP) are investigated. The result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practice several ways in our housing life, that is, the recovery of our coenesthesia, develop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s considering the soundscape, revitalization of community consciousness, rehabilitation of the sensibility, and identity excavation of sound culture, and it is very important to spread out a plan for integrating the following four categories of strategies : conceptual, educational, political, and social.

키워드 : 사운드스케이프,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 마을만들기, 주민참여, 실천전략, 세계 사운드스케이프 프로젝트  
Keywords : Soundscape, Soundscape Design, Community Planning, Citizen Participation, Practical Strategy, WSP

### 1. 서 론

#### 1.1 연구의 목적

사운드스케이프는 여러 시대와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리환경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를 문제로 각각의 소리환경을 개별의 소리문화로 재파악하는 사고로서, 그 출발점은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몸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통해 생활속에서 주위세계를 어떻게 느끼는가, 각각의 공간을 어떻게 의미 짓고 그 환경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가라는 점을 청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의 작곡가인 머레이 쉐이퍼(R.M.Schafer)가 처음 제창한 사운드스케이프는 현대의 예술사상과 생태학(ecology)이라는 영역에 그치지 않고 도시, 사회,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상과 활동 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에 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1)</sup>

또한 사운드스케이프 사고방식에 기초한 다양한 디자인 활동을 의미하는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은 사운드스

케이프의 미적인 질을 개선하기 위한 원리를 발견하고자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술 등 다양한 학문분야가 연계되어 있는 새로운 학제적 연구분야로써<sup>(1~3)</sup>, 우리나라의 소리환경을 가꾸어 나아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운드스케이프의 이념과 사상을 통해서, 우리의 소리환경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풍부한 환경으로 가꾸어 나갈 것인가를 소리풍경의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로부터 그 전개방향을 고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 활동을 어떻게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시켜 나갈 것인가의 구체적 실천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사운드스케이프의 개념

#### 2.1 사운드스케이프

사운드스케이프는 1960년대 북아메리카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생태학(ecology) 운동을 배경으로 캐나다의 현대음악의 작곡가인 머레이 쉐이퍼(Murray Schafer)가 제창한 용어로서, 자연이나 도시를 둘러싼 서양 근대의 다양한 계획론이 시각에 편중해 온 것에 대해 청각을 단면으로 전신감각적인 사고를 되찾으려고 하는 이념이다. 전문

\* 주 저 자, 목포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센터 전임연구원  
\*\* 교신저자,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oh@mokpo.ac.kr)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이 연구는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R11-2008-098-00000-0)

적으로는 ‘개인 또는 특정의 사회가 어떻게 지각하고 이해하고 있는가에 강조점을 둔 소리환경’으로 정의되는 사운드시케이프는 서양의 현대사회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면서, 지구상의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리환경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문제로 한다.<sup>(4)</sup>

### 2.2 사운드시케이프의 관련 영역

#### 1) 계획영역에서의 사운드시케이프

사운드시케이프의 사고는 그림1과 같이 우리들의 생활과 활동을 만드는 다양한 영역에 관련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현대사회에 있어서 도시를 만드는 각종 계획권의 영역에서는 그림2와 같이 사운드시케이프의 사고가 도입되어 다양한 형태로 배려될 가능성이 있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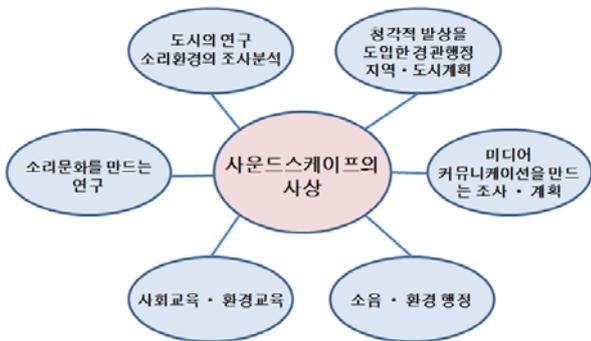


그림 1. 사운드시케이프 개념 관련영역<sup>(5)</sup>

#### 2) 학제영역으로서 사운드시케이프 디자인

사운드시케이프 디자인은 과학자, 사회과학자 및 예술가(특히 음악가)의 재능을 조합하는 새로운 학제간 연구 분야이다. 이것은 소리환경의 사회적, 심리적, 미학적 질 또는 사운드시케이프를 개선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하고 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이다. 사운드시케이프의 기법은 교육적이고 기술적(technical)이며, 특히 후자는 소리의 제거 또는 제어(소음저감), 환경에 분별없이 도입되기 전 새로운 소리의 평가 뿐 아니라 소리의 보존(표식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력적이고 독자적인 소리환경을 창

조하기 위한 소리의 상상의 조합과 균형을 포함한다. 또한, 사운드시케이프 디자인은 실제 환경의 작품을 포함할 수도 있어 이 점에서 현대의 음악작품으로 이어진다. 개인, 지역 및 문화적 행태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만큼, 사운드시케이프 디자인은 폭넓은 커뮤니케이션 학문 분야의 시각을 이끌고,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및 지리학 등과 같은 여러 영역에 접해있다.<sup>(2)</sup>

### 3. 사운드시케이프의 구성범주

#### 3.1 기초음(keynote sounds)<sup>(1)</sup>

기조음은 음악용어의 주음(keynote)에서 만들어진 단어로 시각적인 지각에 있어 배경(ground)에 해당한다. 조성(調性)음악에서 악곡의 조성을 결정하는 주음은 항상 의식적으로 들리는 것은 아니라도 악곡 전체를 통해 그 기본이 되는 소리이고 그 악곡에서 모든 소리소재가 갖는 다양한 의미는 모두 이 주음과의 관계에 의해 발생된다. 이와 동일하게 기조음은 모든 소리지각의 기초가 되고, 의식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지만 결코 빠뜨려서는 안되는 소리로서, 특정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청취습관을 그 기저에 규정하고 그것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예를들면, 파도소리, 폭포소리, 원시림의 소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림 3. 기조음 (파도소리, 폭포소리)

#### 3.2 신호음(sound signals)<sup>(1)</sup>

신호음은 청각적 도형(figure)으로서 의식적으로 들리는 모든 소리이다. 밴쿠버의 사운드시케이프에서, 웨이퍼 일행이 신호음으로써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것은 기적과 무적이라는 음향적 통신, 경고 시스템이다. 기조음

				사운드시케이프 개념의 검토			
도시 디자인 레벨	Community · Identity(CD)의 검토와 창조 거리만들기의 기획운영 Social · Planning 등			→ ←	생활자의 감성·의식·행동	⇒ 풍경	도시의 이미지음으로부터의 발굴 변화함, 활기, 정숙의 검토
도시 계획 레벨	조례의 제정	경관행정 토지이용계획 도로계획 등	→ ←	각종 조례에의 청각적 요소의 도입 사운드시케이프 발상을 일어나게 하는 부지계획			
환경 설계 레벨	경관의 계획 · 보전 각종 Zoning 등	→ ←	사운드시케이프의 발상을 일어나게 하는 zone 계획				
공간 설계 레벨	부지계획 토목 · 조경설계 건축설계 등	→ ←	건조물, 포장면의 소재 등의 음향특성 으로 부터의 검토				
장치 설계 레벨	Street · Furniture의 디자인 조명디자인 등	→ ←	각종 음장치의 설치 · 설계에 즈음한 지역의 환경 및 문화로서의 검토				

그림 2. 사운드시케이프 개념의 디자인활동 일반에 있어서 위치설정<sup>(5)</sup>

과 신호음은 반대를 이루는 개념으로 게슈탈트 심리학의 도형과 배경의 관계에 해당한다. 사운드시케이프에서 기조음과 신호음은 시각에 있어서 형태를 보는 법과 같이 소리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의 소리가 사운드시케이프에 있어서 배경이 되는가 도형이 되는가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의 귀의 의식과의 관계방법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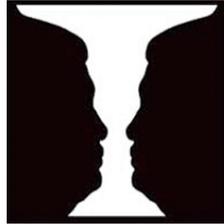


그림 4. 도형과 배경



그림 5. 신호음 (자동차 경적, 구급차 사이렌)

### 3.3 표식음(soundmarks)<sup>(1)</sup>

신호음중에서도 특히 특정 사운드시케이프를 뚜렷이 부각시키는 그 음향적 생활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 또는 그 공동체 사람들에 의해 특히 존중되고 주의시될 것 같은 특질을 지닌 소리가 표식음이다. 표식음은 눈에 비치는 풍경의 랜드마크(landmark)로부터 만들어진 단어이다. 예를들면 밴쿠버의 성로자리 교회의 종, 삿포로의 시계탑 등을 들 수 있다. 어떤 소리가 공동체에 있어 일단 표식음으로 확립되면 그 소리는 보호될 가치가 있어 보존활동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정지역에서 어떤 소리가 표식음이 되는가는 전적으로 그 지역의 역사 그 밖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어느 지구에 살고 있는가 또는 개개인이 지역과 관계되어 있는 방법에 의해서 더욱이 그 시대에 의해 표식음으로서 의식되는 소리의 대상이 다르고, 기조음과 신호음의 경우도 포함하여 그 실태는 극히 문화적 사항인 것이다.



그림 6. 표식음<sup>(8-9)</sup> (성덕대왕 신종, 일본 삿포로 시계탑)

## 4. 사운드시케이프의 가치와 중요성

### 4.1 생태적 가치

생태학(ecology)은 ‘생물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생태환경이란 ‘인간과 자연(동식물)이 어울어져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의미로, 생태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는 모두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interaction)을 가장 중요시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환경/경관 만들기는 항상 인간중심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인식하고 개발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지역이나 도시를 그 기능성이나 편리성만을 위주로 하는 도시개발이 전개되어 왔다. 이 때문에 우리 주변의 자연생태적 환경은 그 설자리를 잃게 되고 인간과 자연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없는 삭막한 도시환경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예를들면, 우리가 유년기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박쥐(이외에도 제비, 여치, 귀뚜라미... 등의 새와 곤충등 동물 포함)를 볼 수 없는 것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보다 더 넓은 대역의 청취감각을 갖고 있어, 인간이 만든 도시의 인공환경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와는 먼 그들만의 삶의 공간(동굴)으로 쫓겨간 것이며, 열악한 환경을 견디어 낼 수 있는 몇 안되는 새나 곤충들만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공환경에서 살아갈 뿐이다.<sup>1)</sup> 따라서, 인간의 삶의 공간을 소리풍경이라는 사운드시케이프의 개념적 의미로 해석할 경우,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어져 살아갈 수 있는(상호작용하는) 생태적 소리환경, 즉 자연의 동식물이 만들어내는 풍부한 소리환경이 있는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삶의 공간 환경으로써의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sup>2)</sup>



그림 7. 생태적 측면의 소리풍경 (새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

### 4.2 사회적 가치

사운드시케이프의 사회적 가치는 지역사회의 공동체(community) 의식과 관련을 갖는 소리으로써, 마을이나 지역에 있어서 인간의 삶과 관련된 소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발갈이, 발매기, 보리타작, 모심기, 논매기 등의 농요, 고기잡이, 노젓기와 같은 어로요, 토목공사, 철공, 벌목, 팻갈마련 맷돌/방아, 김쌈/수공 등과 같은 노동

- 1) 과거 중부지방에 주로 서식하던 잡식성인 까치를 이제는 남부지방에서도 쉽게 볼 수 있으며, 환경공해에 가장 강한 말매미는 자신들의 종족보존을 위해 짝을 찾으려고 크게 울어댐으로써 서울 시민의 여름밤 잠을 설치게 하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낸 것은 인간중심의 환경만들기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왔던 우리 인간에게 그 책임이 있다.
- 2) 다양하고 폭넓고 섬세한 감각기관을 갖고 있는 동물들(박쥐, 제비, 여치, 귀뚜라미,...등)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그들보다도 더 한정된 감각기관 및 감각범위를 갖는 인간에게도 당연히 좋은 삶의 환경이 된다.

요 등<sup>6)</sup>은 지역 주민의 삶과 애환 그리고 지역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사운드시케이프의 사회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로 인하여 점차 사라지고 있는 전통 재래시장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리면서 변화함과 활기, 동시에 재미를 주는 우리의 정겨운 삶과 애환이 담겨있는 다양한 소리풍경<sup>3)</sup>을 느낄 수 있는 사운드시케이프의 사회적 소리풍경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02년 한국의 월드컵 응원합성의 소리풍경<sup>4)</sup>은 일정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생겨나면서 사라지는 소리풍경이었지만, 당시 우리의 사회적 환경과 국민(인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소리풍경의 정체성(identity)을 보여준 좋은 예이다.



그림 8. 사회적 측면의 소리풍경 (재래시장/남원, 2002월드컵)

### 4.3 문화적 가치

소리풍경의 문화적 특성은 그 기반이 우리의 사회적 정체성(identity)을 표현하고 공동체(community) 의식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와 일맥상통한다. 대신에, 그 지역의 신화적, 상징적 성격의 소리로 표식음(soundmarks)으로써의 가치를 갖는 소리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가령,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기반으로 하여 다른 나라의 소리문화와는 그 성격과 특성이 다른 소리중의 하나로써, 판소리나 축제의 소리<sup>5)</sup>는 지역주민의 삶과 애환이 담겨있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내포하면서, 독특한 한국의 전통적인 소리문화로 계승·발전됨에 따라서 한국의 소리 정체성을 갖는 문화적 가치의 소리풍경을 형성해가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한국의 장례풍습은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매장 위주의 장례로, 죽음을 처리하는 사회의례로서의 엄격한 속성 때문에 이웃한 여러 나라의 장례풍습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의례로써<sup>7)</sup>, 이들 의례요중 하나인 상여소리도 우리의 전통 장례문화를 표현하는 중요한 소리풍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3) 신명나게 춤추며 찢거터거리는 옛장수 아저씨의 가위질 소리, ‘뽕이요’하며 소리치는 아저씨와 뽕튀기는 소리, 생선파는 상인과 흥정하는 아주머니의 소리 등, 우리 이웃의 삶과 애환이 곳곳에 배어있으면서, 활기참, 변화함 및 정겨움 등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전통 재래시장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풍경이다.
- 4)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하던 합성소리는 한국민에게 대단한 흥분과 감동을 주고, 전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사회적 소리풍경의 정체성(identity)을 심어준 좋은 예이다.
- 5) 판소리, 가야금소리, 춘향가, 사물놀이, 농악소리 등 우리의 전통의 소리와 남원 춘향제 등의 축제의 소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림 9. 문화적 측면의 소리풍경 (판소리, 성덕대왕신증, 사물놀이)

## 5. 사운드시케이프 디자인 운동의 전개 방향<sup>6)</sup>

### 5.1 전신감각의 회복

우리의 전통적 사회에서 생활해온 선조들은 항상 자연으로부터 의식주와 관련된 재료를 얻고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삶의 방식을 실천해왔다. 지금과는 달리 도시의 기능성이나 편리성은 부족했지만 자연과 더욱 친밀했던 전통의 생활방식은 오히려 여유롭고 편안한 삶으로, 모두 자신의 몸으로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삶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인간의 삶은 항상 편하고 기능적인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취급하게 됨에 따라 오감의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sup>7)</sup> 우리가 느끼는 오감의 불균형, 즉 시각에 집중되어 버린 감각기능은 현대의 도시생활에서 더욱 편중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시각에 집중된 우리의 생활태도를 전신감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아름다운 경관, 맑고 풍부한 소리, 깨끗한 공기, 시원한 바람, 계절에 따른 온감각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근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5.2 소리풍경의 주거와 도시 가꾸기

슈에퍼(R. M. Schafer)가 세계 사운드시케이프 프로젝트(WSP)를 형성하게 된 동기중의 하나는 청취태도(listening attitudes)이다. 그는 콘서트홀 안밖의 공간을 두터운 벽으로 구분하여 내부는 좋은 소리로, 외부는 무시하는 소리로 나누어버린 우리의 청취태도가 바로 소음공해에 이바지하였다고 말했다.<sup>13)</sup> 실제로, 현대의 주거 또는 도시의 건축물들은 실내와 옥외를 두꺼운 벽으로 분리하여 열, 빛, 소리, 공기 등의 자연적인 요소의 순환을 완전하게 차단함으로써, 우리의 실외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 우리의 전통주거에서는 주택내부에서 마루, 마당, 낮은 담장너머에서 들려오는 매미, 풀벌레, 새, 개울물 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와

- 6) 이 장은 사운드시케이프에 관한 기존의 연구자료<sup>11)</sup> 내용의 일부와 본 연구자가 생각하고 있는 점들<sup>12)</sup>을 정리하여 고찰한다.
- 7) 주거공간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 현대인의 갖혀진 생활 방식에서는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던 전통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정된 감각기관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차 우리의 감각기능이 편중, 불균형화되거나 혹은 퇴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웃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를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생활해왔다.<sup>8)</sup>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른 환경적 요소를 모두 차단시켜 버린 현대건축의 벽은 주거공간 밖의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변의 환경요소를 자연스럽게 순환시키는 친환경적인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리)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 5.3 공동체(community) 의식의 활성화

이웃 또는 마을사람과의 친교와 나눔이라는 공동체(communitiy) 의식을 소중한 가치로 여겼던 우리의 전통 사회의 삶의 방식과는 달리, 두터운 벽으로 세대간을 완전히 차단하여 개인적 프라이버시(privacy)만을 강조한 현대의 공동주택의 생활방식으로는 우리의 주거와 도시문제를 원론적으로 해결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다. 이웃간에 친밀하게 교류하면서 생활하는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하는 것은 우리의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소리풍경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 5.4 감성의 복권

소리풍경(soundscape)의 조사는 소리풍경의 요소 하나 하나의 의미를 듣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감각으로 직접 듣고 느끼는 정서적인 감성체험을 중요하게 다룬다.<sup>9)</sup> 이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귀를 통해서 듣고 느끼는 감성과 정서를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그들 스스로가 지역의 소리풍경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과 소리환경 및 지역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리풍경은 그들의 지역의 생활과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며, 지역의 공동체 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 환경을 이해하고 환경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감성과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자신의 몸으로 직접 느끼고 체험하며 평가하는 일은 가장 근본적이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5.5 소리문화의 정체성 발굴

소리풍경이라는 사운드스케이프는 지역적(regional)으로 사회문화적(cross-cultural)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그 지역이나 나라의 소리풍경의 정체성(identity)을 뚜렷이 부각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이미지화되므로 청각적 경관(soundscape)으로써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즉, 지역의 소리문화를 발굴하는 것은 소리라는 관점에서 지역의 특성을 표출하는 중요한 청각적 경관의 이미지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그

지역의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소리풍경의 요소를 지역의 소리문화로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 접근방식(자연, 역사, 전통, 문화를 기초로 하는 소리의 발굴)과 하드웨어적 접근방식(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소리환경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6.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 운동의 실천전략

### 6.1 사운드스케이프 연구의 계기 : WSP 형성동기

#### 1) 소음공해(Noise Pollution)

WSP(World Soundscape Project)의 형성에 영향을 준 근본적 이유는 소음공해의 문제였다. 소음공해 문제에 관한 관심은 현대사회의 소리환경이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과 비교하면 상당히 예외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웨이퍼는 현대사회의 소음공해를 규탄하고 그 위험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세계의 사운드스케이프는 계속 변하고 있다. 현대인은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급변하는 소리환경의 세계에서 살기 시작하고 있다. 소리의 세기와 질에 있어서도 과거의 소리와는 다른 이 새로운 소리들은 보다 널리 세계 곳곳에 분별없이 번져나갈 위험성을 많은 연구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현재 소음공해는 세계적인 문제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세계의 사운드스케이프는 열악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곧바로 손을 쓰지 않으면 전 세계는 결국 귀머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sup>(2)</sup> 따라서 소음공해의 문제를 주시하고 대처한다는 점은 웨이퍼가 WSP를 형성하게 된 동기중의 하나이다.<sup>(10)</sup>

#### 2) 청취태도(Listening Attitudes)

웨이퍼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위험한 음향 상황을 소음에 대한 우리의 청취태도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고 있다. 사람들은 음악에 대해서 미학적이고 비판적인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청취방법은 콘서트홀이나 청취룸 등의 제한된 공간내에서 일어난다. 사람들은 그러한 공간의 외부소리에 특별히 주의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대개는 소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음악이 콘서트홀로 옮겨진 다음 음악가는 단순히 콘서트홀 등의 내부의 소리에 관해 관심을 기울였고 외부의 소리와는 다르게 대했다는 점에서 웨이퍼는 음악가들이 산업사회에서 소음공해에 이바지한 것으로 비난하고 있다. 웨이퍼는 콘서트홀 음악의 전통에 더해, 음악적 견지에서 소음공해의 문제를 분석하는데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sup>(10)</sup>

#### 3) 시끄러운 음악(Noisy Music)

세 번째 문제는 음악에 대한 소음공해의 직접적 영향을 포함하고 있다. 웨이퍼에 따르면, 현대도시의 소음은 현재 우리의 귀의 물리적 기능을 이미 손상시키고 있고 미적 감수성을 무디게 하여 음악 그 자체의 토대를 침식

8) 우리나라의 전통건축물은 소리 뿐아니라 열, 빛, 공기 등이 자유로이 순환되는 자연소재의 친환경 건축물이었다.

9)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의 조사연구는 지역의 소리환경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소리산책(sound walk)<sup>(3)</sup>이라는 현장체험의 조사방법을 활용한다.

시키고 있다. 그는 최근 몇가지 음악 장르가 도시생활의 이러한 오염된 소리환경에 의해서 특히 영향받아왔음을 지적한다. 웨이퍼의 소음공해에 관한 관심은 록음악(rock band)이 현재 청취자들은 물론 록음악가 자신들의 청력을 손상시킴으로서 소음공해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소음공해의 영향으로부터 음악을 보호하고 어떤 종류의 음악도 소음공해에 기여하는 요인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10)</sup>

## 6.2 사운드시케이프 디자인 운동의 실천전략

### 1) 개념적 전략(Conceptual Strategy)

웨이퍼에 의하면, 소음공해의 근본적 이유는 우리의 청취태도로써 콘서트홀 내부의 소리는 특별히 주의시키고 콘서트홀 외부의 소리는 무시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기본 전략은 사람들이 무시하곤 했던 그런 소리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사람들이 선입견없이 환경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웨이퍼는 사운드시케이프 개념을 제안하였다. 사람들이 모든 소리환경을 거대한 오케스트라, 대우주의 음악작품으로 간주할 때, 더욱 조심스럽게 듣게 되고 결국 콘서트홀에서 음악을 들곤 했던 것처럼 비평적이며 미학적으로 들을 수 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떤 음이 아름답고 즐겁고 어떤 음이 추하고 불쾌한지 인식한다. 즉 그들은 보존되어야 할 소리와 제거되어야 할 소리들을 구별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개인에 의한 독립적 청취활동이 출발점이자 현대도시에서 소리환경과 음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가 된다.<sup>(10)</sup>



그림 10. 밴쿠버 사운드시케이프 표지(1973/1996)<sup>(11)</sup>

### 2) 교육적 전략(Educational Strategy)

사운드시케이프의 개념을 제안하고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듣도록 권장한 후, WSP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청취 방법과 환경음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해야 했다. 즉, 환경음의 청취활동을 촉진하는 두가지 방법으로, 첫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학적 견지에서 환경음을 듣도록 하기 위한 방법과 기술의 제공, 둘째는 사람들이 비평적이고 미학적으로 듣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소리에 의해 발생가능한 건강의 위험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중의 하나가 이어크리닝(ear cleaning)으로 이것은 소리 특히 환경음에 대해서 보다 식별적으로 듣도록 귀를 훈련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이다. 또한 사람들에게 환경음을 듣도록 돕는 하는 방법이 소리산책(sound walk)으로써, 환경에 존재하는 소리 뿐아니라 자신이 내고 있는 소리도 듣게 되는 보행자(soundwalker)는 청중이자 작곡자이며 연주자가 된다.<sup>(10)</sup>



그림 11. 한국과 일본의 소리 100선 표지<sup>(8~9)</sup>

### 3) 정치적 전략(Political Strategy)

앞의 두가지 전략은 한 사회의 개개의 구성원들의 인식과 활동에 초점을 두고, 사람들에게 소리환경에 대한 진정한 차이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개념과 정보의 소개를 강조한다. 세 번째 전략은 제재규약에 의해 집단적이고 후원적인 정부의 힘과 관련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WSP는 정부에 영향을 주기 위해 두가지 방법으로 접근했다. 하나는 시민운동이나 개인적 노력을 통해 그들 정부에 영향을 주도록 개개인의 정치적 의식을 끌어올리는 간접적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정치조직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 방법이다. 정치적 전략은 사운드시케이프의 실제적인 변경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것은 프로젝트가 정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이후 정부의 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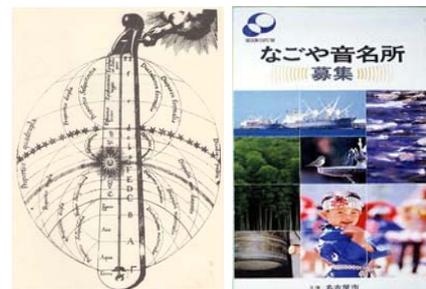


그림 12. 세계의 조율 표지<sup>(2)</sup>와 나고야의 소리명소 모집 팸플릿<sup>(1)</sup>

### 4) 사회적 전략(Social Strategy)

개념적 전략과 교육적 전략이 주로 소리환경 문제의 인식과 이해를 강화시키는 것을 다루는 반면, 정치적 전략과 사회적 전략은 실제적으로 사운드시케이프를 변경



그림 13. 사운드시케이프 디자인 운동의 전개

하려는 시도이다. 사회적 전략은 음악가, 건축가 및 음향 학자 등에 의한 사운드시케이프의 실제적 변경을 포함하고, 이러한 변경의 형태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이며, 현대 사회의 소리환경에 있어서 기본적 변화를 목표로 한다.<sup>(10)</sup>

이들 4가지 전략은 현대의 소리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WSP에서 개발하고 사용된 기본적 접근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전략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관련을 갖고 보완이 된다는 점이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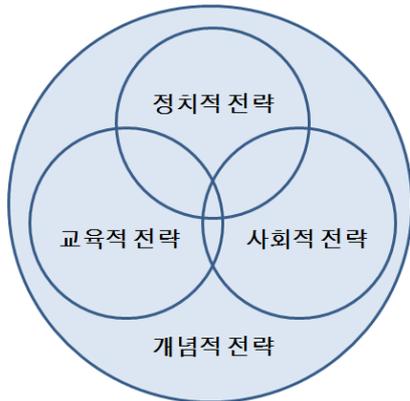


그림 14. 4가지 전략의 상호관계<sup>(10)</sup>

## 7. 결론

본 연구는 사운드시케이프의 이념과 사상을 통해 우리의 소리환경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풍부한 환경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를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로부터 전개방향을 고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운드시케이프 디자인 활동을 어떻게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시켜 나갈 것인가 그 실천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운드시케이프가 갖는 본래의 개념과 의미, 사운드시케이프 디자인의 개념, 사운드시케이프의 구성범주, 사운드시케이프 디자인 운동의 전개방향과 그 실천전략을 고찰하였다.

자연, 역사, 전통 및 문화를 기조로 지역의 독자적인 소리경관의 요소를 파악하고 검토하는데 있어 사운드시케이프는 그 지역의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로써의 중요성이 존재한다. 사운드시케이프의 디자인 운동을 전개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시각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의 감각을 청각도 포함한 전신감각으로 회복시키는 것, 둘째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른 환경적 요소까지 모두 차단시켜 버린 현대의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는 것, 셋째 이웃 또는 지역주민과의 친교와 나눔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하는 것, 넷째 소리환경을 이해하고 환경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으로 직접 느끼고 체험하면서 감성을 복원하는 것, 다섯째 지역적(regional), 사회문화적(cross-cultural)인 차이가 존재하는 우리의 소리문화의 정체성(identity)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소리환경을 바꾸어 나가기 위한 사운드시

케이프 디자인 활동을 전국민적 운동으로 실천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몸으로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며, 그 실천방안으로서 개념적, 교육적, 정치적, 사회적 전략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사운드시케이프 디자인 운동을 전개/실천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동네가, 우리의 마을이,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도시가, 우리의 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지구 전체의 소리풍경의 정체성(identity)을 회복하게 되므로써 세계의 소리풍경(soundscape)을 조율(the tuning of the world)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그 바탕에는 우리들의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아름답고 풍부한 소리풍경의 정체성을 우리의 세대가 가꾸고 육성하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다.

1960년대말 생태학(ecology)운동을 배경으로 청각을 단면으로 전신감각적 사고를 되찾으려는 사운드시케이프의 이념과 사상이 우리나라의 소리풍경을 가꾸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鳥越けい子 지음, 한명호 옮김(2005), 사운드시케이프 : 그 사상과 실천, 도서출판 세진사, pp.3~9.
2. 머레이 웨이퍼 지음, 한명호·오양기 옮김(2008), 사운드시케이프 : 세계의 조율, 도서출판 그물코.
3. Barry Truax,(1978), Handbook for Acoustic Ecology, A.R.C.
4. 鳥越けい子(1999), 音風景とわがまち, 月刊 地域づくり, 119号.
5. 鳥越けい子(1991), サウンドスケープの考え方とその現代社会における意義, 日本機械學會環境工學總合シンポジウム '91講演論文集, pp.495~498.
6. 최상일,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농요, 어로요, 기타 노동요-, 돌베개, pp.8~12, 2002.
7. 최상일,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2 -의례요, 유흥요, 서사민요, 기타민요-, 돌베개, p.17, 2002.
8. 장해랑(2002),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 한국방송출판.
9. 環境廳 監修(1997), 残したい日本の音風景100選, 實業之日本社.
10. Keiko Torigoe(1982), A Study of the World Soundscape Project, Master Thesis of Fine Arts, York University, Canada, pp.8~15.
11. Sonic Research Studio(1973/1996), The Vancouver Soundscape CD, Canada.
12. 한명호, 오양기(2007), 지역의 소리문화로서 소리풍경의 가치와 실천방향, 한국음향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6권 제2(s)호, pp.95~98.
13. 한명호, 오양기(2008), 사운드시케이프 디자인 운동의 전개를 위한 실천 전략, 한국건축환경설비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110~113.

투고(접수)일자: 2008년 9월 19일

심사일자: 2008년 9월 22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10월 14일